

## 動的 概念과 靜의 概念(제5회)

金基錫

### 두 개의 神學

우리들은 무엇이 있다고 한다.

무엇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時間에 있어서 있다는 것이다. 무엇이 時間에 있어서 있기 위하여는 時間에있어서 부단히 움직이면서 부단히 자기를 限定하면서 있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時間에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를 그 속에서 限定하는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存在하는것은 아니다. 存在하는 것이란 본대 時間에있어서 있는 것을 가르치고 時間을 벗어나서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안키 때문이다. 存在하는것이 아닌 한에서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한에서 그것은 우리들의 思惟와 열매여 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란 存在하는 것이요. 存在하는 것이란 時間에 있어서 부단히 움직이는 것이니, 움직인다는 概念을 밝히는 일이 存在者를 바로 理解하는 길이 아니면 아니 된다. 이 움직인다는 概念에 대한 커다란 見解가 있음을 보나니, 하나는 움직이는 것을 꺼지는 것 사라지는 것으로 보는 見解요. 하나는 움직이는 것을 싸우는 것 뒤트는 것으로 보는 見解다. 움지기는 것을 꺼지는 것 살어 지는 것으로 보는 이들은 꺼지고 살어 지는 것이 存在의 本體일 까닭이 없다고 하여 움지기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根源的인 實在에 나서자고 하고 움지기는 것을 싸우는 것 뒤트는 것으로 보는 이들은 싸우고 뒤트는 것이 生成의 原理라고하여 움지 기는 속에 있으면서 久遠한 發展에 섞여 흘러자고 한다. 사람들은 하나를 理想主義하나를 現實主義라고 부른다.

理想主義는 움지기는 背後에 어떤 움지기지 안는 것이 있다고 가르친다. 꺼지고 살어지는 것 背後에 꺼지지 안코 살어 지지 안는 것이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 하여 이 어떤 根源的인 實在에 있어서 움지기는 存在, 꺼지고 살어지는 存在가 있다고 가르친다. 움지기는 것을 꺼지는 것 살어 지는 것으로

보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은 아니다. 움직이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요. 꺼지는 것 살어지는 것으로 번역하여 버릴 것이 아니다.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는 것으로 깊이 생각하여 나아가지 못하는데 理想主義의 差跌이 있다고 보아서 조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은 흐르는 것, 바꾸이는 것이니 꺼지는 것 사라지는 것을 그 속에 가지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움직이는 것은 흐르는 것, 바꾸이는 것이니, 꺼지는 것에 대한 이러나는 것 사라지는 것에 대한 솟아오르는 것을 그 속에 가지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現實主義는 움직이는 것이 發展하는것이라고 가르친다. 싸오고 뒤트는 속에 眞實한 生成이 있다고 가르친다. 그리 하여 이 久遠한 騷亂속에서 사람은 그 자신 한 개의 소임을 맡어 뒤트는 마당에 나서야 한다고 가르친다. 움직이는 것을 싸우는 것 뒤트는 것으로 보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은 아니다. 움직이는 것은 어디 까지던지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요. 싸우는 것 뒤트는 것으로 번역 해야 버릴 것이 아니다.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는 것으로 깊이생각하여 나아가지 못하는데 現實主義의 病弊가 있다고 보아서 조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은 흐르는 것 바꾸이는 것이니 싸우는 것 뒤트는 것을 그 속에가 지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움직이는 것은 흐르는 것 바꾸이는 것이니 싸우는 것에 대한 잇그는 것 뒤트는 것에 대한 잠잠한 것을 그 속에 가지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된다.

理想主義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것을 나어 늦는다고 보았고, 現實主義는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모양을 보이면서 흐르고 있다고 보았다. 理想主義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잇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나타난다고 보았고, 現實主義는 움직이는 것이 나아가면서 움직이지 않는것 가치 보여 지는 때가 있다고 보았다. 理想主義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眞實한 存在라고하여 움직이는 것을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면서 한 개의 靜의 神學에 들어섰고 現實主義는 움직이는 것이 久遠한 發展이라고하여 움직이는 것을 싸우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한 개의 動의 神學을 세우고 있다.